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도시발전을 위한 방법환경설계(CPTED)의 전략과 향후 과제*

The Strategy and Prospects of CPTED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박 현 호** · 김 영 제***

<목 차>

I. 서론	IV. 방법환경설계(CPTED)의 발전방안 과 과제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CPTED의 전략과 최근 동향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법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도시범죄, 방법환경설계(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이 연구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2006년도 첨단도시개발사업(07도생/BO1)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저자)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공동저자)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고밀도 사회로의 진입을 가중시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전통적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약화, 대인간 익명성과 갈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범죄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총 범죄발생 건수는 1,719,075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545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비용도 4조6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경찰청, 2006).

특히, 도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가 범죄 및 무질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자들의 논리가 선진국의 범죄학계에서는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다(박현호, 2007a). 이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범죄를 하나의 블랙홀(black hole)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많은 환경범죄학자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stage)’를 조사하는 것이 현재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환경범죄학에서 거론되는 범죄지도(crime mapping)와 범죄다발지역(hot spotting) 등이 도시행태와 범죄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범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범죄는 범죄를 일으킬 동기가 자질이 있는 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좋은 환경과 마주했을 때 행동으로 발생한다. 여기에서 좋은 환경은 범죄에 대한 동기부여에 적절한 대상이 늘 존재하며, 범죄를 막을 사람이 부재하고,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많은 환경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황폐하거나 방치되어 주거환경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이 3,000여 곳이나 된다(Home office, 2000).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계획으로 동기간 일률적으로 건설된 주거지의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가 예견되거나 미개발 주거지의 방치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아마도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도시로 개발계획이 없거나 실행이 불가능하여 철거 예정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의 Safer Cities Programme, EU의 SECURITY의 활성화, 그리고 국내 도시의 WHO 안전도시(safe community)¹⁾ 등은 사람들에게 주거지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도

1) WHO(1998)에서는 안전도시를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

시공간의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설계기준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개선 노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에서 예견되는 각종 사건·사고의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주거환경의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로 표기함)간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운영철학이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도시환경의 설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략들이 통합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발전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방법환경설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영국 내무부가 지원하는 SBD(Secured by Design)인증제도와 SCP (Secured Car Parks)제도를 소개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PTED의 현실과 전망을 간략히 분석 한 후 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의미를 통해 한국적 CPTED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주로 CPTED와 관련한 외국의 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에 의존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고찰과 자료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방법환경설계(CPTED)의 개념

일반적으로 방법환경설계(CPTED)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법 전략”을 의미한다(Crowe, 2000:34). Crowe(1991)의 환경설계의 개념은 Jeffery(1971)와 같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조작을 통하

나라에서는 수원시, 송파구 등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여 범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CPTED를 단순히 합법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Newman(1972)의 방어공간이론과는 다른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실용적으로 응용화 된 오늘날의 CPTED는 범죄학과 도시계획분야의 접목으로 발전하여, 공공디자인의 영역 중에서 방법환경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Newman(1972)의 '방어공간(defence space)' 보다 좁은 개념인 지역사회(communitiy)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CPTED가 도시환경의 적정한 설계와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PTED는 보다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검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접근통제(access control)라는 4가지 핵심 원리를 더욱 전문화하고 실용화하였다. 따라서 현대적 개념에서의 CPTED는 광의적으로는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면 보다 안전한 도시(Safer Community), 설계를 통한 안전(Secured by Design), 안전도시(Safety Community) 등으로 구현되어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지에서 지역차원의 도시발전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다(박현호, 2007a).

2. 도시발전과 방법환경설계

도시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곧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은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이경선, 2008; 김천권, 2002; 김영모, 2001; 김영환, 2000). 도시발전이론에서는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에만 비중을 두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환경을 고려한 도시발전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경제발전과 반드시 상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환경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변동권, 2008).

도시발전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의 조화 즉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아울러 환경의 질도 보전함을 전제한 개념이다. 도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세대 간·세대 내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자원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여 모든 인류와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삶의 질 향상은 범죄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안전의 욕구가 그 기본이 되며, 이를 위해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safer community)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요약되는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류의 영속적인 삶에 대한 보장마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에 하나인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가 21세기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G. Harlem Brundtland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나라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WCED, 1987).

우리 정부도 1990년 이후 CPTED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방법설계를 적용하면서 최근에 신도시 설계와 건설시 범죄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관련 학계,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 산업계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CPTED 가이드라인은 주택, 공원, 주차장, 상가, 은행 등 각종 생활 침해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안전 요구를 반영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신도시 계획 시 안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지침이 마련된 바 있고, 최근 건설되고 있는 광고, 동탄, 판교신도시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와 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CPTED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에서의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넘어 국가정책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도시 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3. 도시의 지속가능성(urban sustainability)과 방법환경설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전제조건은 도시환경이 현재나 미래의 합법적 사용자에게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 무질서, 증가하는 범죄 등이 '지속불가능한(unsustainable)'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분명히 범죄와 범죄 두려움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설득력 있는 지표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도시 빈민층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CPTED가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8; Napier et al, 1998; Haughton, 1999; Du Plessis, 1999).

CPTED는 복잡성, 지식기반, 역동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도시차원의 경쟁우위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간적 범위를 주로 커뮤니티 단위에서 논의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안전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CPTED를 통해서 지속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이를 통한 혁신역량 증대 및 정보·지식의 확산, 기존 도시의 성장·발전 및 새로운 지역사회의 패러다임의 발굴·육성,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영국의 SBD는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사회로부터 축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 건축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취할 윤리적 접근에 대한 확장된 담론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설계를 넘어서 위험요소,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박현호, 2008a:6).

방법환경설계(CPTED)가 도시환경의 건전성과 범죄감소 및 범죄 두려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운용철학이 필요하다. 영국은 CPTED이론을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하나의 공공철학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CPTED는 넓게 보았을 때 영국 내무부(Home Office)가 지원하는 상황접근법(Situational Approach)과 그 외의 Safer Cities, Security By Design(SBD), Natural Crime Prevention, Secure and Liveable Communities 등 사회적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프로그램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특히, SBD는 1989년부터 영국 내무부 범죄예방지원부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주거 단지들은 범죄활동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CPTED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는 지방자치단체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와 협력하여 SBD의 요건 중의 어느 항목이나 혹은 전체 항목을 현재의 건축규제법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SBD의 적용기준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병원, 학교, 상업건물에 대한 단지별 SBD가 준비 중이다(Cozens, 2002:133).

ACPO는 1992년에 SBD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주차장이나 차량 보관 지역에서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안전기준을 더욱 높이도록 만드는 SCP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영국 내무부와 영국주차장협회(British Parking Association)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국자동차

협회(Automobile Association)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들은 SBD기준에 적합한 주차장에 대하여 인가증을 부여하여 공공 주차장에서의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ACPO, 2000). 이것은 주차장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범죄행위가 이루어질 기회를 제한시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기간은 1년이고 해당 시설에서의 범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고객중심의 접근법이 실행되고 있음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대형화물트럭이나 운송회사 주차장과 같은 관련 시설에까지 적용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조치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을 시행하여 SBD와 SCP를 지역사회 범죄 및 무질서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Cozens, 2002).

다양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분석이나 도시설계기준을 통해서 공공의 위협요인에 대응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련연구와 실용기술 개발이 미흡한 수준이다. 각종 뉴타운, 신도시, 신시가지의 개발 계획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 및 설계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의 개발 위주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도시안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CPTED를 적용한 신도시 계획들이 정부정책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나 정책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도시·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나 기준마련이 미흡하여 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지자체들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한 공간구획이나 바닥패턴에 변화를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안전과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행태 및 동선을 고려한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 또는 근린관리(urban regeneration or neighborhood management)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설부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범죄문제를 지역사회 또는 동네 단위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면, 지역사회나 동네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CPTED적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근거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범죄예방에 대한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과한다든지, 건축 및 개발설계의 평가와 승인 등에 범죄예방적 고려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특정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주차장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감독규정시행규칙, 부천시 CCTV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경찰서 CCTV관제센터 운영규칙 등이 마련된 정도이다.²⁾ 따라서 도시 환경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도시 확장이나 복합화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를 비롯한 교통 및 보행과 관련된 각종 생활안전의 문제로 인한 사회간접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CPTED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III. CPTED의 전략과 최근 동향

1. CPTED의 운용·관리전략

범죄 장소에 관한 초창기의 연구들은 도시에 대한 동심원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서 범죄가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갈수록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련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범죄생태학에 중심이 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러 연구들이 ‘빈민굴’, ‘슬럼가’, ‘무서운 지역’ 그리고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한 장소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환경 범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 범죄학이 공식적으로 정의되거나 확고하게 확립된 적은 없지만 범죄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대(hot spots)’라는 장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대하여 Jacobs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도시 설계 특성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Newman의 ‘방어공간 이론(defence space theory)’을 기반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냈다. Newman은 ‘방어공간’이 도시를 다시 살만한 곳이 되도록 만들고 경찰이 아닌 공동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지역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의 주거 환경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Jeffery와 Newman 이후, CPTED는 범죄학 내에서 하나의 굳건한 하위 분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에 여러 가지 ‘범죄 지리학’이 등장하여서 범죄의 사회 생태학을 깊이 조사하고 그 중심 초점으로 위치, 공간, 영역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환경 범죄학은

2) 더욱이 최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CCTV설치의 법적근거와 사생활 등 인권침해 최소화의 기준이 마련되어 방법 CCTV시스템 구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박현호, 2007b:5).

범죄(crime), 범죄행위(criminality), 범죄피해(victimization)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이 장소를 기초로 한 요소나 공간 요소로 그들의 활동을 가꾸어가는 방식과 관련된 범죄, 범죄행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로 진화되고 있다. 예컨대, Wilson and Kelling(1982)은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통하여 사회적 결속력과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수준에 대한 물리적 지표로서 환경 유지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방어공간이론’에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도움을 주는 4가지의 요소가 있다. 첫째로 물리적 환경은 영역 영역 지역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주인 의식(ownership)’을 길러 주고 소유권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둘째, 환경 설계는 주민들과 그 대리인들에게 감시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설계는 프로젝트의 독특한 특성, 고립, 불명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주변 환경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 환경 설계 방안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성, 거주민들의 지역사회 인식을 안전하고 생산적이고 유지관리가 잘 되는 이웃 가꾸기라는 책임감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이론의 운용철학에는 현대적 CPTED방안과 그 외에 몇 가지 범죄예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 예방에 대한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잘 계획된 범죄예방 전략이 범죄와 범죄 피해자화를 예방 하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다(Cromwell et al., 1991; Coleman, 1978; 황선영·황철수, 2003; 임승빈·박창석, 1992; 최희철·전동훈, 1995).

이처럼 CPTED의 운영 전략은 지역과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억제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효율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그 활동의 기초는 접근 방법과 지식에 관한 최근 정보와 자료여야 한다. CCTV,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공공 디자인, 범죄환경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다른 현대적 기술과도 함께 이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원칙 그리고 기반 규격 및 법률 역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성공적 발전전략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많은 기관과 관련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이 필요하다.

CPTED는 범죄학과 도시계획 내의 지역사회·물리적 관점차원에서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 감시(natural 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접근통제(access control)라는 4 가지의 핵심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운용된다. 첫째, 영역성의 개념은 주인의 식이 지역사회 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영역성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정해놓은 공간을 보호하고 담장, 도로포장, 정원가꾸기, 예술품, 표지판, 제대

로 된 유지관리, 조경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설계의 본보기들이다. 그러므로 경계가 뚜렷한 장소에서는 침입자와 잠재적인 범법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둘째, 감시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 특성, 활동,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조경과 조명 설치하는 집이나 건물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이웃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자연 감시를 더욱 늘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원, 호텔 안내원과 같이 잠재적인 ‘문지기’에 의한 ‘공식적’ 감시와 자연 감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활용성의 증대는 유기된 장소 또는 비어 있는 장소를 불법적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여 지속적인 도시 공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또한 활동지원이란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더욱 조장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 설계를 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활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지역 사회가 포함된 활동을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자연 감시와 주인의식이 커지고 낯선 사람들이 더 빨리 눈에 포착될 것이다. 넷째, 접근통제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을 더욱 사용하게 조장하고 공간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보행자의 흐름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된 출입구, 담장, 조경, 조명들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현관에 경비원배치에서부터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혹은 외부인에 대한 주차제한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Crowe(2000)는 CPTED를 위한 분석을 위하여 물리적 공간에 대한 3단계 검토 과정(Three-D Approach)을 통하여 지역사회 도시발전과 환경개선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지정(designation)’은 어떤 지역의 용도와 지역에서 허락되는 행동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다. 둘째, ‘정의(definition)’는 어떤 지역의 물리적 한계, 공적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허용되고 가능한 활동, 잠재적인 위협과 공간의 오남용에 대한 계획에 관련된 것이다. 셋째, ‘설계(design)’는 어떤 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이 의도된 용도가 없고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의도된 기능을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공간은 범죄행위의 기회를 저지하고 범죄행위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 CPTED의 최근 동향

선진국들은 도시범죄의 예방과 범죄감축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로 CPTED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효과성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안문제에 있어 경찰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환경설계(CPTED)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해외사례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건축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설계지침을 개발한바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는 드물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지 않다. CCTV와 같은 방법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복합도시나 U-city 조성 사업과 같은 첨단도시화사업에서 도시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이나 관련 연구가 열악한 현실에서 정부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 및 요소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방법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경찰청이나 대기업 등에서 발주된 연구가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다. 2005년 6월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계획 시범적용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부천시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공간분석과 현장관찰을 통해 범죄위험도가 높은 공간을 선정하여 가로등과 CCTV 위치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새로운 전략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최재필 외, 2006). 2007년 12월에는 치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면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산학협동으로 지능형 방법 CCTV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안감 조성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CCTV 위치를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박현호, 2008b).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시스템(CCTV, 출입통제 등)이 IT기술의 발전과 CCTV의 보급 확대로 기계 및 전자경비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생활안전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분야에 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3)³⁾,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경찰청, 200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해양부,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건축 설계 매뉴얼(한국토지공사, 2007) 등과 같은 지침과 매뉴얼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추진으로 비효율적이거나 통합적인 도시안전 방안마련에 한계가 있고,

3) 국토해양부는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제정되어 운용되어 오던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반적인 도로환경에서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를 포함하기 위하여 현행 지침으로 개정·운용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3).

새로운 도시안전지침이나 설계기준들이 개발되어 현장에 반영되기에는 기존의 법·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변화된 도시환경에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계 및 전자경비 산업 외에 도시 및 건축 설계를 포괄하는 거시적 의미에서의 방법설계 분야가 산업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곤란하지만 영국의 방법설계 인증제도인 SBD와 네덜란드의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획득에 따른 수익사업과 인증 주택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관련 건축, 설비, 보험 산업 및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된 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건축 및 방법산업의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U-City 시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2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중 도시 건축물의 방재안전과 관련된 U-safety 부분은 약 4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IT 기술이 접목된 도시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 21). 또한 지난 판교, 광고 신도시나 행정복합도시계획 등의 안전도시계획 적용안이 발표되고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술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R&D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후 관련시장은 현재보다 10년 후 최소 3~4배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방법환경설계(CPTED)의 발전방안과 과제

1. 방법환경설계(CPTED)의 발전방안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 하나가 이미 건축된 환경에서 범죄에 대한 기회를 변경시킴으로써 강도, 차량 범죄, 거리 폭력, 파괴행위, 방화, 절도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법환경설계(CPTED)이다. 초기의 CPTED는 매우 취약한 논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이 물리적 환경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 사회적 관점을 도외시하여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새로 세워진 모든 환경과 공공장소 혹은 건축물에 바람직한 보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은 채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에만 집중하였다거나, 범죄예방이 전적으로 경찰기관에게만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저변 자본들을 폭넓게 끌어 들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초기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CPTED가 범죄예방에 실질적이

며 효과적인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부 유럽도시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즉, ‘유럽도시헌장(European Urban Charter)’은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방정부, 정부조직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비록 범죄 두려움이 범죄의 실질적 위험 간의 관계에 있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범죄는 도시 삶의 질을 감소시키므로 그 자체로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의 활성화’, ‘지역 사회의 기능회복’, ‘자연적 감시’, ‘역할의 분권화’, ‘관리 및 유지보수’와 같은 요소들을 파트너십 접근방법을 통하여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CPTED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디자인(Socially Responsible Design: SRD),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의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D),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 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CPTED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사회적으로 대응성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박현호, 2008b: 3). 특정지역의 CPTED는 위험을 외부화(risk of externalizing) 하거나 위험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관리가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CPTED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디자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CPTED는 낮은 수준의 무질서 형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 실현을 떠안을 수 있는 설계이어야 한다. 특히, 삶의 질 문제는 단순한 사건사고의 감소가 아닌 노약자와 장애인,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 디자인 및 배치의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도시의 수많은 물리적 환경의 위험들에 쉽게 노출되고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CPTED의 교육훈련 및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CPTED는 범죄 및 불안감에 취약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사회안전 위협요인 중에서 범죄 및 불안감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인적자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CPTED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4) 유럽의 police label과 유럽 표준(European standard)은 범죄와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대책들을 포함하는 완전한 파트너십의 결과이다(Soomeren, 2008:252).

구축하여야 한다. CPTED가 성공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비공식적 형태의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협력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는 공공의 이익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자원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정치적인 정당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핵심이다.

따라서 CPTED가 보다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철학과 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한 지자체 또는 정부의 대안, 실천방안, 법·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CPTED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자와 학회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방법환경설계(CPTED)의 향후 과제

CPTED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범죄예방에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원의 대책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진척되고 있는 핵심논의별로 살펴보면, 표준 및 인증화 사업 추진, 법제도적 장치마련, 과학적 범죄분석의 실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CPTED는 표준·인증사업을 통하여 관련 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추진되어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안전의 문제는 단순한 사건사고의 감소가 아닌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연계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CPTED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것이 방법기기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이든, 디자인에 대한 인증이든 간에 정착여부에 따라 브랜드 가치로서의 효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과는 달리 CPTED인증은 재산이나 사람의 안전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증제도 자체가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도 몹시 크기 때문에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한 CPTED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CPTED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이경훈, 2008:320). 또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도시환경 설계 및 관리 표준을 위한 표준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표준화 사업은 표준을 기반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연구 개발하여, 조직의 구성·운영방법, 개인의 행동규범, 사회 환경의 설계·관리, 제도의 설계·이행절차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시스템 구축·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로서 고도의 통합적 사회시스템표준(social system standard)을 구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최근 일반적인 CPTED의 원리와 지침들이 적용되는 설계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일정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협약을 통한 각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여 CPTED를 지역에 적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규화에 따른 이행의무와 이행에 따른 보상, 건축허가 시 CPTED에 의한 설계지침의 반영에 따른 추가 예산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정부부처간의 의견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CPTED의 제도화는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규들에 대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에 크게 배치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쟁점들을 수렴한 높은 수준의 법규 제정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경찰종합학교, 2008). 그리하여 CPTED시스템이 안전을 요구하는 대다수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감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지속가능하여야 한다.

범죄의 경향을 지도화하고 CPTED 효과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범죄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범죄의 통계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그리 밝지 못하다. 보고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는 사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상당히 높게 총 범죄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범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해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장소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CPTED는 대개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분석하여 대응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들은 쉽게 정의되지 않고 쉽게 측정되지도 않는다. CPTED의 연구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결정적인 주관적 범죄척도가 전통적으로 '방어공간'에 대한 평가에서 간과되어왔던 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범죄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CPTED의 범죄 대응요소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의 유지관리 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노력을 수반하는 도시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Wilson·Kelling(1982)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CPTED의 주민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들이 낙서를 지우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처럼 CPTED의 제도화는 주민의 인식정도와 함께 매우 과학적인 범죄분석과 기법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범죄과학의 실현정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CPTED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경찰은 보다 신뢰성과 구체성을 가진 범죄통계를 관리 및 산출하고 과학적 범죄분석기반을 위하여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Space Syntax(공간구분론),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등의 관련기술과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박현호, 2007d).

최근의 CPTED에 대한 관점은 범죄학과 도시계획분야에서 물리적·사회적 요소를 중심

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국한된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을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CPTED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합해 내어 ‘참된 삶의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론자들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환경설계에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Du Plessis, 1999:42)고 주장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여성운동가들은 1992년 리우환경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성 이슈(gender issue)가 본격적으로 UN과 선진각국의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건축 및 환경정책 수립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성차별의 철폐 차원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장하면서 CPTED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류전희, 2006:32). CPTED는 범죄의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범죄 동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CPTED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합해내는 한 가지 형태인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론(sustainable urban environmentalism)’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CPTED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참된 삶의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개발 시 사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영국의 ‘Local Agenda 21’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 법원의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자신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리자의 법적책임(premlises liability) 판결은 건물주의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주의의무를 통하여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로 평가된다(김영제, 2007:126).

V. 결 론

21세기의 도시만들기 패러다임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및 자동차에 따른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CPTED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도시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 항목 중 주거지역 면적당 보안등 및 가로등 비율뿐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처럼 SBD (Security by Design)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 및 인증사업에 대한 노력과 이를 실천하는 전략에 있어서 보다 구체화된 주체와 객체들 간의 긴밀한 사회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 주민참여, 도시민의 재정착, 도시환경의 개선, 지역별 특성화 등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환경설계의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국외적으로 사회전반에 파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주민의 참여 풍토를 정착시켜 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기반시설의 강화, 공공의 사업관리 강화, 도시민이 주거안정 등 도시환경의 선진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CPTED는 도시개발 및 범죄해결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권과 관련된 도시건축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차별 철폐 차원의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방법환경설계(CPTED)가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범정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200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 2003년 1월.
- _____ (2006).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시행방안·평가항목·평가지표, 건설교통부 도시정책 팀 내부자료. 2006년 8월.
- 경찰종합학교(20008). 200년도 교육혁신을 위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세미나 자료.
- 경찰청(2006). 『범죄통계』, 대한피앤디.
- 국토해양부(2008). U-Space 구축기술. U-Eco City 사업단 상세기획 연구보고서.
- 김영모(2001).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지역연구 제 19집, pp.1-11.
- 김영제(2007).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2000). 영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정책 및 개발사례.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리포트 24, pp.60-65.
- 김천권(2002). 압축도시(Compact City)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대안.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 제13권 제3호, pp.95-107.
- 류전희(2006). 여성친화도시, 국제적 동향, 한국여성건설인협회세미나 발표자료집, pp.31-48.
- 박현호(2007a).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표준화 연구[1], 국립경찰대학교.
- _____ (2007b). 연구수 방법CCTV 추가 설치지역 선정 등을 위한 연구, 국립경찰대학교.
- _____ (2007c).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 '경찰과 사회' 대한문화사.
- _____ (2007d). 행복도시의 범죄예방과 CPTED 기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성과진단 및 도시비전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_____ (2008a).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
- _____ (2008b).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표준과 인증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pp.3-48.
- 변동권(2007).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생태도시 실험사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사회과학연구, 제52권 제5호, pp.23-26.
- 서울시(200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국회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 이경선(2008).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전망.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52권 제5호, pp.23-26.
- 이경훈(2008). 범죄환경설계(CPTED) -표준과 인증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국

- 제 컨퍼런스 자료집. p.311-321.
- 임승빈 · 박창석(1992).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단지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8권 제10호, pp.55-64.
- 최재필 · 이경훈 · 민수홍 · 표창원 · 박현호(2006).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계획(CPTED) 시범 적용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6-5 연구보고서.
- 최희철 · 전동훈(1995). 현대 집합주거지에서 전통주거의 방어공간개념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15권 제1호, pp.177-180.
- 황선영 · 황철수(2003).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8권 제1호, pp.53-66.
- ACPO(2000). Secured By Design Update. January 2000. ACPO.
- Brantingham, P. J. & Brantingham, P. L.(1998). Environmental criminology: from theory to urban planning practice.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7(1). p.31-60.
- Coleman, A.(1987). Utopia on trial: Vision and reality in planned housing, London, Shipman.
- Cozens, P. M.(2002).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British City. Towards an Effective Urban Environmentalism for the 21st Century. School of Technology, University of Glamorgan CF37 INL, UK. p.130.
- Cromwell, P. F., Olson, J. N. & Avary, D. W.(1991). Breaking and Entering: An Ethnographic Analysis of Burglar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rowe, T. D.(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den). Butterworty-Heinemann, Oxford.
- Du Plessis, C.(1999). The links between crime preven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pen House International* 24(1). p.33-40.
- Haughton, G.(1999). Searching for the sustainable city: competing philosophical rationales and processes of 'ideological capture' in Adelaide, South Australia. *Urban Studies* 36(11). p.1891-1906.
- Home office(2000).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London.
- Jeffery, C. R.(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 Napier, M., Du Peessis, C., Liebermann, S., Kruger, T., Show, M., Louw, A. and Oppler, S.(1998). *Environmental Design for Safer Communities in*

South Africa, Volume 1 and 2.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Pretoria.

Newman, O.(1972). *Defensible Space People and Design in the Violent City*. Architectural Press, London.

Sooneren, P. V.(2008). Tackling crime and fear of crime b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design, International CPTED conference report, p.265-307.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ABSTRACT

The Strategy and Prospects of CPTED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k, Hyeon-Ho · Kim, Young-Jea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are interrelated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healthy and safe cities implies regulations or legal, lawful control to reduce fear of crime and prevent substantial threats to health and safety of individual persons as well as of the community.

City planners attempt to apply to the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their perception of what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with respect to urban environment. Many planners have studied on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in fear of crime and actual crimes through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ir preliminary studies provide specific suggestions to reduce crimes and fear of crime by application of CPTED.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in policy necessary for CPTED, which is one of the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to take its place as a useful strategy for making the urban societies safe and sustainable.

Key Words : Urban Crime,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Urban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